

신세계프라퍼티, 광주 어등산 복합쇼핑몰 본격 추진

시에 사업계획서 제출... '더현대' 이어 두번째 경쟁사 롯데그룹 '신중 모드' 속 신년 초 주목

‘글로벌 유통 강자’ 신세계그룹이 광주 어등산 스타필드 복합쇼핑몰 사업계획서를 28일 광주시에 공식 제출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이 광주시와의 법적 다툼에서 1, 2심 패소 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지 하룻 만이다.

광주에서 대형 복합쇼핑몰 사업계획이 접수된 것은 지난 11월 현대백화점그룹의 ‘더현대 광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광주시는 내부 검토 작업을 거쳐 29일 사업계획서 원본을 시청 인터

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 지난 9월 발표한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추진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신속·공정하게 모든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스타필드 개발·운영사인 신세계프라퍼티는 앞서 지난 8월, 쇼핑·문화·레저·엔터테인먼트까지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정통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광주(가칭)’를 어등산관광단지에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8000억원을 투입해 이르면 2024년 하반기 착공해 2027년 완공한다는 목표다.

현지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총괄하고 외국인, 기관 등 대규모 자본을 유치해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300여 개 브랜드를 입점시키고 참고형 할인점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함께 구축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스타필드 광주’가 들어서면 3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신세계 프라퍼티는 2016년 9월 스타필드 하남을 시작으로 현재 경기 고양·안성·서울 코엑스몰까지 스타필드 4곳과 도심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시티(위례·명지·부천) 3곳을 운영 중이며, 호남권에서는 최초로 글로벌 시장조사기업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이 내놓은 ‘2022 아시아 100대 유통기업 보고서’에 따

르면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소매 판매액 기준 아시아 100대 유통기업 순위에서 7위, 국내 1위를 차지했다.

광주시는 제3차 제안 공모 공고를 통해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곧바로 착수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273만 6200여 m²)는 광주도시공사 소유의 시유지인데다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가 사실상 완료된 상태여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광주형 복합쇼핑몰 추진 절차는 크게 6단계. 사업계획서 제출을 시작으로 ▲신활력행정협의체 구성·운영 ▲시민·시의회 의견 수렴 ▲대시민 발표 ▲신속한 윈스톱(One-stop) 행정처리 지원 ▲지역상생 방안 협의의 순이다.

우선, 사업 제안서는 입점 경쟁에 공개적으로 뛰어들 민간사업자인

‘유통 빅3’, 즉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로부터 각각 접수받게 된다. 이후 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 제안내용을 가감없이 공개하게 된다.

이어 행정부시장 산하 신활력추진본부 등 시 관련 부서와 관할 자치구 등을 중심으로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회’를 구성, 민간사업자에게 신속한 행정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복합쇼핑몰 설립과 관련한 법적 요건과 행정·기술적 사항은 이 과정에서 꼼꼼히 검토하게 된다.

한편 광주 첫 대형 복합쇼핑몰에는 현재까지 유통 빅3 모두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 현대는 일신·전남방직 터에 ‘더현대’를, 신세계프라퍼티는 어등산에 ‘스타필드’를 공언했고, 롯데그룹은 최종 입지를 물색 중이다. /조일상 기자

광주시 올해 우수정책 1위는 ‘복합쇼핑몰 본격 추진’ 시민광장 광주온(ON) 설문

광주시가 올해 추진한 주요 정책 중 성과가 뛰어나고 시민 공감도와 체감도가 높은 ‘올해의 베스트 5’ 우수정책을 28일 선정, 발표했다.

간부 공무원 설문을 거쳐 10개의 후보사업을 확정된 후 시민과 시의원, 공무원 등 45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민광장 광주온(ON) 설문조사를 통해 5개의 우수정책이 최종 선정됐다.

우수정책 1위는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본격 추진’이 선정됐다.

시는 민선8기 들어 ▲최고 수준의 민간투자 ▲상생과 연결을 위한 국가 지원 ▲시의 신속·투명한 행정 지원 등 3대 원칙과 5대 방향을 설정하고, 복합쇼핑몰 제안서 접수 작업을 공식화했다.

지난 11월 현대백화점 그룹이 제안서를 제출했고, 도시계획변경 논의 등을 위한 협상조정협의회와 윈스톱 행정처리를 위한 신활력행정협의체를 본격 가동하는 등 대한민국 최고의 복합쇼핑몰 유치를 신속·투명·공정하게 추진 중이다.

2위는 가름 극복 물절약 홍보, 3위는 ‘맘편한 내☆일, 광주아이키움 2.0’ 출생부터 성장까지 촘촘한 온종일 돌봄 체계 강화(성장단계별 돌봄지원 정책, 광주아이키움.kr), 4위는 56년 만에 무등산 정상 시민의 품으로, 5위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확장사업 실시설계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지역성장 계기 마련이 선정됐다.

김영근 시 평가데이터담당관은 “내년엔 시민이 행복한 광주실현을 위해 민선8기 주요 사업의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매년 주요 정책 중 성과가 뛰어나고 시민의 공감도와 체감도가 높은 대표 우수정책을 선정·포상해 광주의 변화와 시민의 행복을 이끌 수 있는 공직자의 창의적인 정책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D-100

“광주의 멋·맛·의, 축제의 장”

세계 5대 비엔날레 중 하나인 광주 비엔날레가 개막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시와 (재)광주비엔날레는 28일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광주비엔날레 개막 D100 선포 및 1호 입장권 전달식’을 열고, 성공 개최를 위한 뜻을 올렸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soft and weak like water)라는 주제로 내년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94일 간 비엔날레 전시관, 국립 광주박물관,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 예술공간 집,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등에서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광주비엔날레 개막을 100일 앞두고 예술을 매개체로 민·관이 힘을 모아 코로나19와 경제난, 고물가, 지구촌 전쟁 등 크고 작은 난관을 헤쳐 나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는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전시 준비에 총력을 다하면서 세계 미술사에 기억될 전시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비엔날레를 통해 세계속의 광주의 문을 완전히 열어

광주가 광주답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모아 함께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비엔날레는 전 세계인들과 함께 광주의 멋과 맛, 의(義)를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날 강 시장으로부터 1호 입장권을 전달받은 정은혜씨는 캐리커처 작가 겸 배우로 인기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도 출연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 작가는 “내년 4월 개막하는 광주비엔날레를 꼭 보러 오겠다”고 약속했다.

15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들도 개막 D-100일 기념 응원영상 제작에 나섰다. 1분 분량의 영상은 사회관계망(SNS) 채널에서 만날 수 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역 숙박업체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공동 마케팅도 진행, 외지 관람객들의 방문을 촉진할 계획이다.

비엔날레 기간 홀리데이인 광주, 광주 유담 부티크 호텔&레지던시, A.C.C DESIGN 호텔, 라마다플라자



광주 비엔날레 성공 염원 글귀

1호 입장권 ‘우리들의 블루스’ 출연 정은혜 작가에 전달 시민사회와의 소통·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협업도 진행

광주호텔 등의 숙박객에게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또 보다 많은 외지인들이 광주비엔날레를 비롯해 광주의 문화예술공간 등을 감상할 수 있도록 관광활

성화 차원에서 2일권 입장권 등을 개발했고, 개막 후 현장에서 구매 가능하다.

지난 22일부터는 예매 입장권 판매도 시작했다. 예매 입장권은 개막

전인 내년 4월6일까지 재단 홈페이지 티켓 정보 페이지와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네이버 예약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김도기 기자

광주시 CES 첫 참가	2번
민주당, 광주서 최고위원회의	3번
인구이동 48년만에 최저	4번

생활속 물 절약 함께해요!

양변기에 물 채운병 넣기

설거지 전 미리 휴지로 닦기

양치컵 사용하기

한 번에 모아서 빨래하기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